

한화, Q1 영업이익 140% 폭증

동양증권, 화약 매출 안정적 ... 대한생명 상장가치도 재부각

동양증권증권은 4월4일 한화에 대해 8만원까지 주가 부담은 없다며 투자의견 <매수 후 보유>와 목표주가 10만원을 유지했다.

황규원 연구원은 “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2008년 영업실적 개선을 감안하면 목표주가를 낮출 이유가 없다”며 “한화건설의 시흥매립지 개발 차질 및 대한생명 지분 인수가격 인상이라는 최악의 경우에도 적정 가치는 8만원 이상”이라고 말했다.

또 “화약부문의 안정적 매출과 인천 소래공장 부지개발의 영업이익 반영으로 2008년과 2009년 연평균 영업이익은 2500억원으로 전년대비 85% 이상 증가할 것”이라며 “특히, 2008년 1/4분기 영업이익은 41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0% 늘어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아울러 “2/4분기 말에는 대한생명의 상장가치가 재부각될 전망이고 4/4분기에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매립지 매각 잔금 4900억원을 현금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”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4/04>